

기적의 순간-예술가와 청소년들의 공동작업

안나 하딩

런던 스페이스 관장

들어가는 말

대규모 전시의 발전은 후기자본주의의 경제적 변화나 정보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관광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교육과 오락의 결합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문화의 민주화와 연관이 있다. 규모가 큰 전시나 비엔날레는 문화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반응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아마도 정확히 말해 이러한 행사들을 우리의 눈길을 끄는 행사로 만드는 일종의 탐구 같은 것이다. (카를로스 바수알도 매니페스타 저널 No.2 / 2003년 겨울호, 2004년 봄호)

근대미술의 상징적 자본은 시장논리로부터 벗어난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대부분이 작품수집에 의존하는 미술관과는 반대로 비엔날레에서, 예술작품의 상업적 운명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엔날레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은 생산 형태면에서 훨씬 자유로운 융통성을 가지며 장르 간(interdisciplinary) 결합이 자유로우며 일시적인 구조나 설치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비엔날레를 통해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비엔날레는 기존의 근·현대 미술관의 규범이나 관습과 비교할 때 급진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시험한다. 예를 들어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는 대개 작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상징적 관행의 맥락 내에서 작품을 탐구한다. (교육과 젊은 층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술적 규범의 개정과 예술작품의 자율적 본성에 대한 재조명은 비엔날레가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들이다.

비엔날레가 채용하고 있는 전시기획적인 접근은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지평과 가능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나 맥락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 이는 큐레이터나 작가들이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국제주의의 지평과 연계시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마술적인 순간(magic moments)이란 사람이나 맥락과 관련이 있는 예술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에 대한 접근이 앞으로 열릴 부산 비엔날레에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위해 의미있는 참여의 미술로 독특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러한 미술에 대한 접근은 2006년 블랙 독 출판사에서 출간된 나의 저서 마술적 순간들: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의 협력에서 고찰하였다. 이 책에는 195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작가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젊은이들과 협력한 30여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과 협력해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동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작가들의 관점: 작가들은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긴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 **파이잘 압두알라**는 젊은이들과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발소 운영에서도 문화적인 발언을 삼가는 법이 없다. 그는 젊은이들의 야망과 열정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동시에 젊은이들의 예술가에

대한 선입견은 작가가 초연한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

- 밥과 로베르타 스미스는 딸 에타를 자신들의 작품에 협력자로 개입시켰고 이를 통해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 리즈 아우토제나는 밥과 로베르타 스미스처럼 자신의 딸에 대해 언급하며 무엇이든 가능한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을 회상한다. 그녀는 장난스러움이 어린이의 특권이라 생각했다.
- 소나 윌링워스는 그녀의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미술프로그램 추진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 묘사하였다.

2. 작가와 학교: 교육제도에의 개입

- 제프 게이스는 벨기에의 공교육 제도 내에서 개발된 독특한 교육프로젝트를 제시한다. 그의 미술 프로젝트는 1960년대 시작되어 25년 동안 운영되었다. 최근 아인트호벤 현대미술관(van Abbemuseum Eindhoven)에서 열린 회고전에서 그의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의 전시는 1960년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작품이 예술이라기보다는 단지 사회학의 일부라 생각한 정치가들 때문에 취소되었다. 게이스는 길버트와 조지 등을 포함한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교실에 작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운동장에 세계지도를 그렸다.
- 룸 13(Room 13)은 스코틀랜드 포트 윌리엄의 카울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6세에서 11세 사이 초등학교생들의 자율운영 스튜디오로 대규모 학급활동의 익명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자율성, 책임감, 지적 능력, 자기확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마틴 크렌과 보헨크라우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학교 교육방법을 관찰하였고 학생들과 함께 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은 새로 지은 교실의 비품설치와 관련이 있으며 마틴 크렌의 학생 대 학생 면담과 연구는 학교가 보다 많은 학생주도 교수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 리이드백, 디아스 그리고 O+I은 과소평가되거나 어떠한 교육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젊은 사람들의 감성과 특징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 O+I 창립회원인 존 라삼과 바바라 스테베니의 사우스웍 학교(Southwark) 연구프로젝트는 런던 빈민거주지의 한 공립학교에서 진행되었다. O+I은 12곳의 사우스웍 학교에서 시행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는 교육부로 하여금 높은 중퇴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그들의 연구프로젝트는 체육시간(PE), 연극수업, 운동장,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활기 차 보이는 활동 등에서 동기를 찾았다. 이 프로젝트는 대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행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명확한 발음이나 언어화 능력을 관찰하였다.
- 리이드백과 디아스는 감광기술에 근거한 기법을 고안했으며 이를 통해 친밀한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리오 데 자네이로, 아틀란타 소년원, 뮌헨 리엠의 한 특수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에서 이들은 정규 교육제도에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어린이들의 인식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 벤 사들러는 여러 학교에서 예술가로 작업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익살스런 만화논평을 제시한다.

3. 학교로부터, 그리고 학교를 넘어

데이빗 하딩과 팀 롤린스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과 함께 작업하며 이들의 열정을 고취시킨 개인적인 스승의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연이은 성취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딩과 롤린스는 그들의 전체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반영하고 있다.

- 크리스틴 루카스는 소재로서 젊은 여성과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 루카스는 공동협력체인 리버풀의 FACT와 함께 작업했다. 많은 작가들은 미리 결정된 자신들이 작업이 문제가 많은 것임을 발견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 테이트 리버풀은 후원사인 롤스 로이스와 협력했으며 그들의 후원과 교육부서는 테이트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롤스 로이스 기술자들의 도제식 훈련은 예술작품의 제작과 전시를 위한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독창성을 제고한다. 롤스 로이스의 기술자들은 두드러진 자기표현이나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삼가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관습적인 사고에 얽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젝트의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보다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 크리스 도레이-브라운은 1994년과 2004년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비디오로 촬영했으며 이들의 성숙함에 권위를 부여한다. 젊은이들은 작가가 젊은 성인들에게서 인식한 자신감과 성장을 표현한다.

4. 미술관과 화랑에 도전하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미술관의 전문가들에 의해 영속화된 소장 작품과 전시작품의 해석에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며 자신만의 양식과 언어를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통용시킨다. 미술관이나 화랑은 전시작품이나 소장작품의 재배치와 주석작업을 위해 작가들을 한동안 고용하였다. (미국작가 한스 하케나 프레드 윌슨처럼). 유명한 미술가나 저자의 명성은 미술관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개념미술가 마이클 애서가 로스 엔젤레스 미술관의 LACMA Lab과 협력한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협상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여기에서 애서는 하나의 개념적인 의사표현 행위로서 소장작품을 재설치하는 작업을 지역학교의 10대 학생들에게 위임하였다.

- 팔레 닐센은 덴마크 작가로 대리혁명의 행위, 권한부여의 무정부적인 행위인 Model for a Qualitative Society로 1960년대 스톡홀름 근대미술관을 어린이들이 모험을 위한 놀이터로 변화시켰다.
- 카르멘 메르시는 학생들의 화랑방문 기록이 화랑의 자금모집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유도한다.
- 맨하탄 어린이 미술관의 큐레이터인 데보라 슈바르츠는 전시기획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의 욕구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준다. 작가 윌리엄 웨그만, 프레드 윌슨과 함께 작업한 그녀의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미술 배후의 과정과 사고를 안출해낸다.

5. 공동체 내에서 작가들과 젊은이들의 협력

- ISEP는 놀이 중인 어린이들의 마술적 특징, 풍부함, 독창성에 의해 영감을 얻었으며 어린이들의 놀이와 결합된 작품을 창조한다.
- 주스트 코니진의 어떠한 가치판단도 개입하지 않는 따뜻한 초상화는 장기간에 걸친 가족 간 연

대의 결과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별 작가들의 발언에 대한 의존과 주제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모든 설명의 배후에는 무명의 삶으로서 작가들이 본 것을 환기시키는 개인적인 헌신이 담겨 있다.

SPACE - 새로운 미술제도의 한 보기

시각예술가나 디자이너에게 적절한 작업실을 제공하는 교육자선행위

스페이스 (SPACE) 빌딩에 입주한 작가나 공동체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창조성을 통한 번영과 복지를 제고한다.

- 1968년 작가들에 의해 설립
- 작업실로 이용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건물
- 600명의 작가들과 16여 곳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에 작업실 대여
- 총매출 200만 파운드
- 이스트 런던 내부투자를 위해 60만 파운드 기증
- 5%의 수입은 예술위원회 자금지원
- 70%는 작업실 임대수입
- 정부의 사회경제 발전, 교육문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우선권

- 우리와 비전을 공유할 파트너와 작업
- 저렴한 작업실의 지속가능성
- 참여와 접근의 확대

경제적 배경

세계적인 도시로서 런던의 창조적인 환경에 공헌

스페이스는 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참여 시키고 런던의 문화적이며 창의적인 경제에 공헌한다.

- 문화주도적 개혁
- 창조적인 시민들이 공동체의 창의적 잠재성을 촉진시킨다.
- 창조적인 산업에 있어서 작업을 위한 기술훈련과 고용

스페이스 교육 / 훈련 프로그램:

스페이스 미디어 아트

- 이스트 런던 공동체/산업의 미디어/ICT에 집중
- 대표적인 신생 미디어와 공적인 공간에서의 미디어 (예: 작가위원회, 심포지움, 행사)
-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과정, 상담, 작가에 대한 충고

최근 프로젝트 - uksoundtv (Bow의 기록과 방송기술을 개발하는 젊은 층 주도의 사회사업/채널 5.2 기술훈련/창의적인 산업의 채용을 위한 학생이 디자인한 인터넷 포털)

스페이스의 협력관계

참여적, 장소 특정적, 작가 주도적 프로젝트

- 지역거주자 사이의 혁신 제고
- 지평의 확대
- 새로운 정책과 작업에 대한 헌신
- 작업실 근방의 학교, 젊은층, 고령층의 이익과 기원에 부응함
- 과정, 공동체 참여에 집중함

최근 프로젝트 - BOPP (BOW 노년층 프로그램)/Ranwell Estate/Abolition 07/ Brandon Ballengee 사이아트 (Sci-Art) 협력

스페이스 전시

국제 작가중심 프로그램은 작업실에 활력을 불어넣음

변화가 위치, 훈련과 작업실 활동의 크로스오버

최근 프로젝트 - 티후아나 유기물 (Tijuana Organic) - 국경지대 여성의 현실/가장 달콤한 꿈 - 발칸반도의 예술가들/중앙아시아 프로젝트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지스탄 작가교류 프로그램

스페이스 경력개발 프로그램

전문작가 동년배집단 멘토링

국제입주작가 프로그램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과거: 이윤만을 추구함이 없이 넓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여 저렴한 공급 가능 임대료가 저렴한 비어있는 공장지대 활용

현재: 공동개발 기회 - 혼합 사용개발, 적당하고 감당할 수 있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것의 개발을 추진함

여러 가격대나 급여조건 제시 - 융통성 제고

미래: 임대료는 높지만 공간은 협소한 지역에서 벗어나 인기는 별로 없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런던 근교로 이전 고려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자로서 고려

영국 외의 다른 지역 고려

올림픽이 가져다 줄 기회

문화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희망, 미디어설비 제공,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 올림픽을 위한 직업훈련, 올림픽 정신 지원

올림픽 경기장 주변 저렴한 작업실 임대,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올림픽 공원 300 미터 내 3곳의 부동산 임대)

현재의 유산: 2005년 런던올림픽 발표 이후 스페이스는 이스트 런던에서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간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 행사를 위해 올림픽 대표, 정책입안자, 기업, 예술가 등이 상호 협력한다.

미래의 작업실

스페이스는 미래에 새롭게 출현할 작품생산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지원한다.

-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며 작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작업
- 규모, 위치, 특정성 면에 있어서 유연하며 접근성이 있는 작업실 공간 제공
- 작품 보관 공간의 필요
- 접속성: 모든 작업실은 무선 광대역으로 접속 가능해야 함
- 전통적인 작업실 작업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동작업 지원
- 협력 및 장르 간 통합작업 지원
- 작가들과 함께 가상작업실 표본 개발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프로젝트는 전시, 입주작가 프로그램, 문화교류 등을 포함하는 스페이스, 코너하우스 (맨체스터), 아시아 아트 플러스(카자흐스탄 알마티) 사이의 독특한 공동작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들 지역의 예술 공동체 사이를 새롭게 연계시키며 다방면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중앙아시아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대방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도전하며 한 개인, 혹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 풍경, 문화, 역사,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색한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며 마찬가지로 영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작가들의 작품과 가장 영향력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작가들이 소개된다.

안나 하딩, 캐시 래 후프만, 율리야 소로키나가 공동기획한 중앙아시아 프로젝트는 영국작가들의 작품,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세상이 그렇게 배열되었듯... 일출시의 그림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일몰시의 그림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빛은 좌우나 상하의 구분이 없으며 동서를 분간할 수 없다.’

런던에 거주하는 우즈벡 이민자의 삶을 그린 바야체슬라프 아후노프의 소설 “우즈베크를 지나며” (The Uzbek Transit)에서